



인공지능(AI) 스마트 인덕션, 원격으로 제어 가능해지다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원격제어 인덕션 안전성 검증 및 신제품 출시 지원
- 1차관, 삼성전자 디지털시티 현장방문 통해 규제개선 의지 다져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5.23.(목)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수원)를 방문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출시된 원격제어 인덕션 제품 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신기술·신제품 출시 지원을 위한 기업 현장애로를 청취하였다.

삼성전자는 어린이들의 모래 놀이터(Sandbox)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지난달 국내 최초로 앱을 통한 동작변경, 종료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원격제어 인덕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였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성이 검증된 원격제어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가전 편의성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인공지능(AI) 스마트가전 제품의 출시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강경성 1차관은 산업부 2030 자문단*과 함께 삼성전자의 실증특례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스마트가전 연구개발(R&D) 및 제품출시 과정의 규제 애로를 청취하였다. 산업부는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 현장애로를 적극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가전 제조기업의 AI 적용을 위한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국내 스마트가전 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청년보좌역(단장) 포함, 기업·공공기관 재직자 및 학생으로 구성된 정책 모니터링단

강경성 1차관은 “규제샌드박스로 제품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국내 안전 기준을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 이라면서, “국내 규제개선뿐 아니라 국제 표준 제안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도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제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응로 (043-870-5440)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이의만 (043-870-5443)
			주무관	김묘경 (043-870-5446)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참고1

행사 개요

- (목적)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를 통한 원격제어 인덕션 제품 출시 성과 점검 및 기업건의 등 현장애로 청취
- (일시) `24.5.23.(목) 14:30~16:00
- (장소)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수원)
- (참석자) [산업부] 제1차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2030 자문단 [삼성전자] 이무형부사장(가전사업부 CX팀장), 전경빈부사장(CS센터장), 문종승부사장(가전사업부 개발팀장), 엄재훈부사장(상생센터장)
- (행사내용) ▲간담회(모두발언, 실증특례 성과, 기업건의 청취), ▲현장방문*
* 실증특례 인덕션 제품 시연, 스마트홈 체험관 등

< 현장방문 세부일정 >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30 ~ 14:40	(10') • 기념 촬영	DA1동 현관
14:40 ~ 14:46	(6') • 모두발언(1차관 → 이무형 부사장)	1층 회의실
14:46 ~ 15:10	(24') • 실증특례 성과 발표 및 건의사항 청취	(E101)
15:10 ~ 15:25	(15') • 인덕션 제품 시연	1층 임시전시장
15:25 ~ 15:30	(5') • 이동(생활가전사업부 → eX Home)	이동
15:30 ~ 16:00	(30') • eX Home(스마트홈 체험)	eX Home

- (실증특례 인덕션 주요 기능)
 - 인덕션의 AI 기반 원격제어 기능 활용에 따른 소비자 효용 증대
 - (안심 알림 기능) GPS상 사용자의 외출이 감지되면 인덕션 화구가 동작중임을 알려주고, 팝업창을 통해 인덕션 전원 종료 가능
 - (원격 잠금 기능) 화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 어린이 등 보호를 위해 인덕션 버튼의 잠금 가능
 - (스마트컨트롤 기능) 조리물을 올려둔 채 외출하거나, 자녀 및 반려동물이 화구를 켜는 상황이 발생할 때 제어 가능

□ 주요 내용

- AI,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新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 가속화 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
- 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③임시허가 제도 신설

구분	실증테스트 목적 (구역·기간·규모 등 제한)	시장출시 목적 (구역·규모 제한 정도 낮거나 없음)
규제 모호	① 규제 신속확인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필요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 ○ 사업자 신청 → 산업부 장관 → 관계부처 30일 내 회신 	
법령 공백 · 적용 부적합	②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적용 배제 (2년 이내, 1회 연장가능) ○ 사업자 → 산업부 장관 →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민관합동) 결정 	③ 임시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출시를 위해 2년 이내 임시 허가 부여(1회 연장, 법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간주) ○ 사업자 → 산업부 장관 →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민관합동) 결정
금지·불허	관련 법령 제·개정 필요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실증특례)

-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
- * ①새로운 제품등에 대한 허가 기준·규격·요건이 법령에 없는 경우, ②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규제샌드박스 주요 성과

- (승인실적)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19.1~), 517건* 승인
* 실증특례 447건, 임시허가 52건, 적극해석 18건
- (경제적/사회적 성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6,128억 매출 발생, 1조 2,605억원 투자유치, 1,499명 신규고용 등 성과 창출('24.3월말 기준)
- (규제개선 성과) 47개* 법령정비 완료를 통해 88건의 규제 해소 완료
* 법률 9건, 시행령 11건, 행정규칙 27건